

## [6.5일 미국 증시 급락]

# 한번은 겪어야 할 과정이 시작 됐음을 보여주다

- 금융시장 시선 이동, '미국 통화 긴축 부상' 10일 5월 CPI, 11일 ECB 동일 결과
- 6월~3/4분기 글로벌 증시, 기간 조정 기간. 물가↑, 금리↑, 통화 긴축 꼬리표
- 6.5일 美 증시 급락. '글로벌 통화 긴축 부상+ 증시 변동성 확대' 과정 시작 시사

### 예상보다 빨라진 금융시장 시선 이동 '미국 통화 긴축 부상'

6월 글로벌 증시에 대한 기존 경로는 5일 美 5월 고용, 10일 美 5월 CPI/근원, 11일 ECB 금리 인상 확인 후, 6월 FOMC(현지시각 16~17일)를 앞두고 '글로벌 통화 긴축 부상' 이 증시 노이즈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하지만 美 5월 고용 결과가 긴축 우려를 고개 들게 하면서 앞으로 발표되는 10일 美 5월 CPI/근원, 11일 ECB 금리 인상을 확인할 때마다 연내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서 시계가 더 빨라지지 않을까 하는 금융시장 우려를 확산시키는 기폭제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따라 6월 상반기, 이란 전쟁 종전 소식(가정)은 증시 추세를 결정하던 기존 위상에서, 이제는 증시 반등에 영향을 미치는 역할로 영향력이 크게 축소될 것이다.

### 26.6월~3/4분기 글로벌 증시, 기간 조정 기간. 물가↑, 금리↑, 통화 긴축 꼬리표

6월 상반기 이란 전쟁이 종전된다고 하더라도 물가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2~3달의 시차를 두고 반영될 것이다. 5월 말~9월 초, 미국 드라이빙 시즌까지 맞물리면서 8~9월까지의 공급 측 요인에 따른 물가 상승, 이에 연동되는 장기 금리 상승을 빈번히 목격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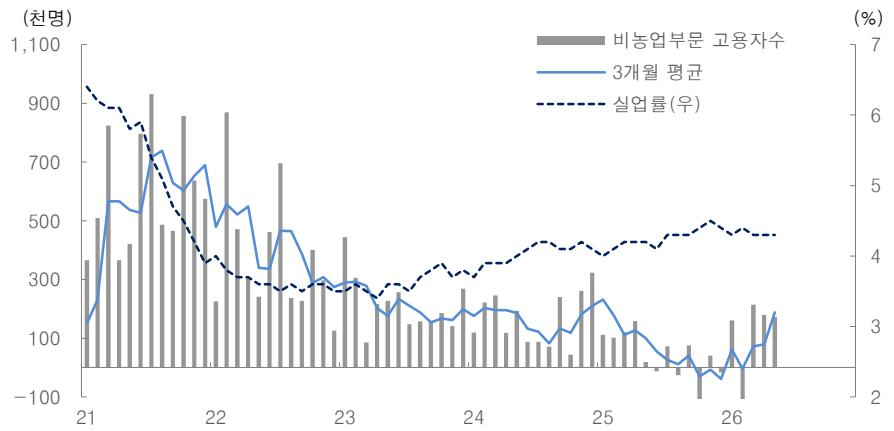
4월 PCE(3.8% YoY) 기준, 통화 긴축 여부와 증시 방향성을 가능할 수 있는 실질정책금리는 (-)로 전환했다. 그동안 정책금리(현 3.50~3.75%)가 PCE 보다 높아 물가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조건에 부합했고, 미국 증시도 상승세를 유지했다. 하지만 4월 PCE를 기점으로 물가 불안 및 증시 방향성은 하방 압력이 높아지는 국면에 진입했다.

최종도달금리 여부를 확인하는 실질정책금리와 실질중립금리 간의 관계는 3월 PCE(3.5% YoY)부터 실질정책금리(0.00~0.25%)가 실질중립금리(1.1%)를 하회하기 시작해, 연준의 금리 인하 환경은 사라졌다. 올해 3/4분기까지는 연준의 금리 인하가 정당화될 수 있는 조건 미부합과 고용, 물가 등 경제지표 확인을 통해 금융시장 내 확산되는 금리 인상 우려로 위험자산 선호심리는 제약될 것이다.

### 6.5일 미국 증시 급락. 올해 한번은 겪어야 할 '글로벌 통화 긴축 부상' 이에 연동되는 증시 변동성 확대라는 과정이 시작됐음을 보여줌. 이제부터는 내리면 사고, 오르면 파는 트레이딩 접근 유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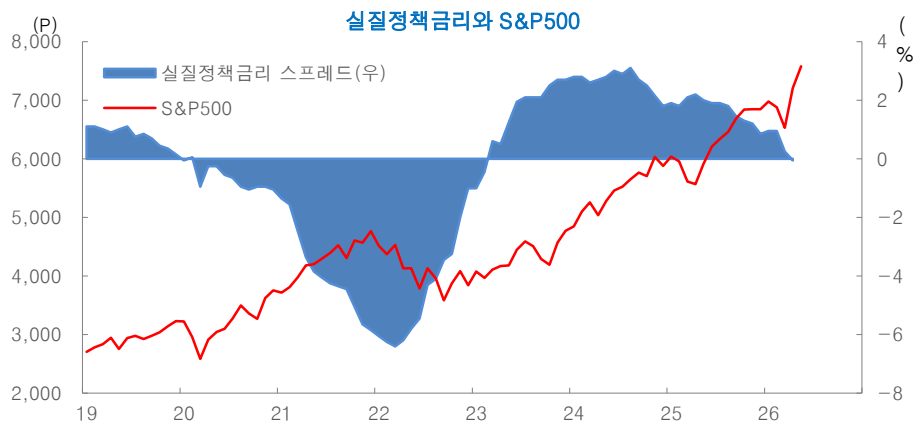
26년 하반기 전망 리포트(5.22일 발간. 글로벌전략: 공존 / 차가운 머리, 뜨거운 가슴)를 통해 하반기 증시 경로를 3/4분기 기간 조정, 4/4분기 상승으로 제시했다. 6.5일 미국 증시 급락은 올해 한번은 겪어야 할 '글로벌 통화 긴축 부상' 이에 연동되는 증시 변동성 확대라는 과정이 시작됐음을 보여줬다. 6.5일 미국 증시 급락 후, 기술적 반등이 나타나겠지만 주식 비중을 줄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내리면 사고, 오르면 파는 트레이딩 접근이, 6월~3/4분기 동안 전술적으로 유효할 전략이 될 것이다.

그림 1. 美 5월 고용지표 결과, 연내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 부각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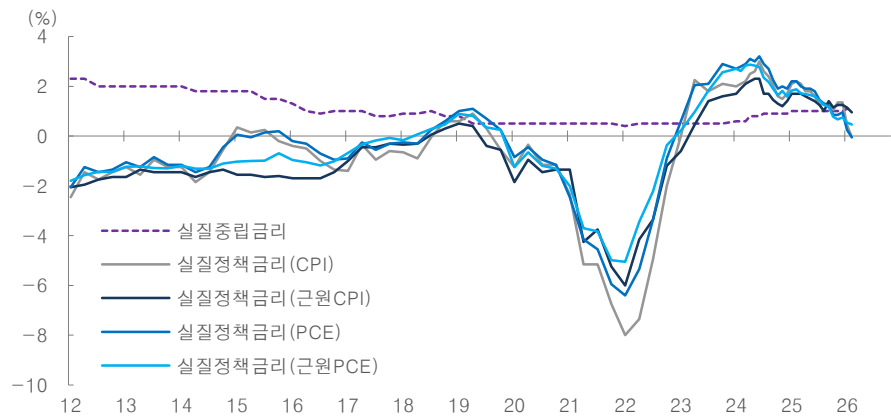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2. (-)실질정책금리 진입. 미국 증시, 하방 압력 높아지는 국면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3. 실질정책금리<실질중립금리 국면. 연준, 금리 인하 조건 부적합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Compliance Notice]

---

금융투자업규정 4-20조 1항5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담당자: 문남중)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 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